

神人調化의 觀點에서 본 修道의 意味

曹 泰 龍

目 次

I. 序論	(2) 神明과 人間의 關係
II. 神人調化와 修道의 意味	(3) 人間의 使命
1. 三界公事에 나타난 大巡眞理의 宗旨	2. 修道의 方法
2. 神人調化	(1) 無自欺
3. 修道의 意義	(2) 布德天下
III. 神人調化와 修道의 實踐	IV. 神人調化와 修道의 完成
1. 修道의 要素	1. 醫統
(1) 對越上帝의 精神	2. 道通과 人尊
	V. 結論

I. 序論

어떤 종교, 철학 또는 사상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그 용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는 그 용어에 담긴 자구적(字句的)인 의미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 종교와 사상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할수가 있는 것이다.

정해진 법칙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존호를 가지고 명명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창시자의 종교적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로 그 종교명을 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여러 종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수가 창시한 종교는 메시아의 의미가 담겨있는 '그리스도'¹⁾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교(기독교)'라고 명명하였고 석가가 창시한 종교는 깨달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불(佛)'²⁾이란 용어를 가지고 '불교'라고 이름지은 것이다. '예수교'라든가 '석가교' 등의 명칭은 그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분히 불경(不敬)하는 마음으로 호칭할 때 사용하는 종교명칭인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상제께서 행하신 종교적 활동과 그 가르침 및 사상을 상제의 존호인 '증산(甞山)'을 사용하여 호칭하는 명칭은 일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순진리회에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종교적 활동 및 가르침과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대순(大巡)'으로 보아 그 진리를 대순진리라 하고 그 사상을 대순사상이라 한 것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종교적 활동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견해와 사상이 나올 수 있다. 상제를 추종했던 종도들 중에도 김형렬이 생각한 것과 차경석이 이해한 것이 다를 수가 있으며, 『대순전경』을 편찬한 이상호가 이해한 것과 어느 종교학자가 이해한 것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모든 종교적 활동과 가르침에 대하여 정산(鼎山) 조철제 도주와 우당(牛堂) 박한경 도전으로 이어지는 종통을 통하여 대순진리·대순사상을 이해·신봉한다.

상제께서 행하신 모든 종교적 활동과 가르침에 대하여 도주께서 그 대강(大綱)을 밝히어 주셨으니 바로 종지·신조·목적이 그것이다.³⁾ 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물샐 틈이 없는 천지공사의 내용을 도주께서 밝혀 주신 종지로서 그 골격을 잡을 수 있으며, 천지공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목적으로 알 수가 있고, 목적에 도달하는 신조로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론

1)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메시아'의 희랍어 번역어이다. 몸에 기름을 바른다는 히브리어는 '석'이고 성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마샤'이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다. 주로 왕과 제사장이 기름부음을 받았는데 기독교에서는 결정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자야말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편집부, 『현대성서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참조

2) 불(佛)은 불타(佛陀)의 준말로써 미망을 여의고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또 다른 중생을 교도하여 깨닫게 하는 자각(自覺)·각타(覺他)의 2행(行)을 원만히 성취한 이를 의미한다. 운허용하편, 『불교사전』(서울: 법통사, 1962) 참조

3) 『전경』, 교운 2장 32절

적으로 종지·신조·목적은 대순진리 또는 대순사상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대순사상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종지(宗旨)중 신인 조화(神人調化)를 중심으로 그에 나타난 수도(修道)의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神人調化와 修道의 意味

1. 三界公事에 나타난 大巡眞理의 宗旨

상제께서는 정유년(1897년)에 이르러 금구군 초치면 내주동에 있는 처남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과 김형렬의 아들 찬문, 그리고 이웃 서동들을 모아서 가르치다가 유불선 음양참위를 통독하신 후 인심과 속정을 살피고자 삼년간의 주유천하의 길을 떠나시었다. 삼년 동안 주유하신 끝인 경자년(1900년)에 고향인 객망리에 돌아오시어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푸시고 공부를 하시었는데, 이 때 상제께서는 진법주(眞法呪)를 외우셨고 오방신장과 사십팔장 그리고 이십팔장 공사를 보시었으며, 그 후 신축년(1901년) 오월 중순부터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가시어 사람들의 근접을 일체 금한 채 사십구일간의 불음불식의 공부를 마치시고 드디어 칠월 오일에 오룡허풍(五龍嘘風)에 천지대도를 열으시었다.⁴⁾

4) 『전경』, 행록 2장 12절.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신 내용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종교적인 해석이 서로 다른 점을 볼 수가 있다. 우선 이상호는 『대순전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천사 여러해동안 각지에 유력하사 많은 경험을 얻으시고 신축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드디어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 도를 닦으사 칠월 오일 대우 오룡허풍에 천지 대도를 깨달으시고 탐음진치 사종마를 극복하시니 이때 그 절 주지 박금곡이 수종들었더라.” 이상호는 상제께서 하신 대원사의 공부를 도를 통하기 위한 수도공부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대순진리적인 해석은 다르다. 먼저 『전경』에서는 ‘도를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천지대도를 열으시었다’라는 표현을 하였으며, 또한 도주께서 상제께서 하신 이 공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 주셨다는 점이다.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백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옹기

대원사의 공부를 마치신 상제께서는 신축년(1901년) 겨울에 객망리 본택에서 참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도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9일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때 행하신 공사의 내용은 시종든 사람의 전하는 기록이 없어 알려져 있지 않다. 공사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종도가 수종들기 시작한 것은 임인년(1902년) 4월, 김형렬이 종도로서 추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⁵⁾

그런데 임인년 4월, 종도로서 추종하기 시작한 김형렬에게 상제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신격위를 암시하는 말씀과 스스로 강세하신 배경⁶⁾, 그리고 삼계공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상제께서 행하고자 하신 천지공사에 대한 요지를 엿볼 수가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⁷⁾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맺힌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

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전경』, 교운 2장 21절) 이렇게 볼 때 대원사의 공부는 상제께서 도를 통하고자 수도를 하신 공부라 아니라 이미 상제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천지신명을 심판하신 공부로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축년 이전에 시루산에서 이미 상제께서 진법주와 사십팔장 공사, 이십팔장 공사를 보신 것에서 더욱 자명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5) 비록 김형렬이 종도로서 공식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한 것은 임인년(1902년) 4월부터이지만 상제와의 인연은 보다 더 오래이다. 상제께서 갑오년(1894년)에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열었을 때, 상제의 성예를 듣고 김형렬이 찾아 뵈었으며 정유년(1897년)에 다시 글방을 열었을 때는 아들 찬문을 글방으로 보내기까지 하였다.

6)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7) 『전경』, 공사 1장 3절

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8)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상제께서 병든 천지인 삼계를 진단하시고 내린 처방전의 요체를 파악할 수가 있다. 먼저 상제께서는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겨난 것에 대한 원인이 원과 한때문이라고 진단내리고 있다.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고 그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고 천지는 상도(常道)를 잃게되어 세상이 진멸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과 한은 인간의 욕망과 세계발전의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라는 처방전은 이러한 진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선 재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화의 원인이 되는 원과 한을 풀어야 하는데 선천우주의 변화가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한을 해소하여도 또 다른 원한이 계속하여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원한발생의 원인이 되는 상극의 구조 자체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한다'라는 말씀과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한다'라는 말씀의 공사이다. 원한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극의 도수를 상생의 도수로 바꾸는 도수조정과 함께 만고로부터 쌓인 모든 원한을 풀었을 때 비로소 세계의 창생은 구제되고 후천선경은 건설되는 것이다.

이러한 삼계공사로서의 처방전은 그 요지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으니, 바로 도주께서 밝히어 주신 대순진리의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이다. 인간 사물을 지배하고 있는 상극이란 구조적 문제점을 조정하는 내용이 '음양합덕'과 '신인조화'이고 그와 더불어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우는 '해원상생', 해원상생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도통진경'의 세계인 후천선경의 건설 등을 생각해 볼 때, 도주께서 정해 주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야말로 상제께서 행하신 삼계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이라 볼 수 있다.

8) 『전경』, 예시 8절,9절

2. 神人調化

상제께서 행하신 모든 종교적 활동 및 가르침 즉 천지공사에 대하여 조정산 도주와 박우당 도전을 통하여 이해했을 때 그것을 대순진리 또는 대순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논한 바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도주께서 밝히어 주신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은 대순진리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것은 『대순진리회요람』의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를 삼고 ...
...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9)

여기서 우리는 대순진리와 종지인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사상·도통진경이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신인조화는 대순진리회의 종지중 하나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음양합덕과 함께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는 선천우주의 도수를 조정·정리하는 공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인조화의 '조화'라는 글자가 조화(調和)나 조화(造化)가 아닌 '조화(調化)'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화(調和)'란 서로 알맞게 어울린다(harmony)는 뜻이고 '조화(造化)'라 할 때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무엇이 된다(make와 becom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신인조화에서의 조화(調化)는 이 두가지 조화(調和)와 조화(造化)가 합해진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결론적으로 신인조화는 '신명과 인간이 서로 알맞게 어울리어 무엇인가로 만들어져서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을 지닌 신인조화의 대순사상적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신도(神道)적 측면에서의 조화로서 여기서는 도수조정적 측면과 신명해원적 측면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전경』의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와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¹⁰⁾라든가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69), p. 9

10) 『전경』, 공사 1장 3절

조화하고”¹¹⁾ 등에서는 해원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며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나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¹²⁾의 표현은 도수조정적인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인도(人道)적인 측면에서의 조화로서, 여기에는 도수조정의 결과라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전경』의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¹³⁾의 표현과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¹⁴⁾의 구절에서 이러한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셋째는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로서의 조화인데 신명과 인간이 서로 알맞게 어울리어 어떤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어 무엇인가가 된다는 점¹⁵⁾이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수도(修道)의 의미와 인존사상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측면으로서, 『전경』의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러나게 하여 고쳐 쓰리라”¹⁶⁾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¹⁷⁾의 표현 그리고 “인간은 양이고 신명은 음이다. 음(신명)과 양(인간)이 서로 합하여진 후에 변화하게 되는 이치(道)가 있다.(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¹⁸⁾의 표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이렇게 신명해원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신명과 인간이 서로 알맞게 어울리어 합하여진 후에 변화를 하여 신선이 된다는 그 어떤 종교와 사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신인조화라는 종지가 있다. 그러나 신인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명과 인간이 서로

11) 『전경』, 공사 3장 5절

12) 『전경』, 예시 9절

13) 『전경』, 공사 1장 3절

14) 『전경』, 예시 9절

15) 신명과 인간이 조화하여 무엇인가가 된다는 이 무엇인가는 지상신선의 실현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16) 『전경』, 교법 3장 1절

17) 『전경』, 교운 1장 41절

18) 『전경』, 제생 43절

알맞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 즉 수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修道의 意義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 나름대로의 종지와 목적이 있다. 그러한 종지 아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의 하나로써 특유의 수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불교는 우주자연의 현상을 고·집·멸·도의 사성체(四聖諦)로 표현하고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진리를 궁구하여 미(迷)한 생사를 초월하여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인 열반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팔정도, 간화선 등의 여러 가지 수행법을 택하고 있으며, 도교는 불로불사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단·복식·부술·방중 등의 수도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선비의 목적을 대인, 성인 혹은 군자가 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정일집중(精一執中)이니 신독(慎獨)이니 하는 방법을 택하여 수양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아래서 무자기→정신개벽·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대순사상 특유의 방법이 제기되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수도의 의미가 규정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순사상에서는 수도의 의미를 두 가지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협의의 의미에서의 수도이며 둘째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수도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순사상에서는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속에서 무자기→정신개벽·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심·안신·경천·수도의 사강령과 성·경·신의 삼요체로 구성되어 있는 신조(信條)이다. 협의의 의미에서의 수도는 이러한 신조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수도를 고찰해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순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¹⁹⁾

수도는 심신을 침잠추밀하여 대월 상제(對越上帝)²⁰⁾의 영시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²¹⁾

광의의 의미에서의 수도는 이렇게 신조의 사강령 중의 하나로서 수도를 생각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대순진리의 종지 속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를 생각한다면 지상천국건설이란 목적을 위해 포덕전하를 이루고자 하는 실천적 종교활동 역시 수도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일동일정에 있어서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 역시 수도의 중요한 일면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Ⅲ. 神人調化와 修道의 實踐

1. 修道의 要素

수도를 행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는 아무도 없는 심산유곡에서 홀로 마음을 닦는 수도가 아니며, 빈방에서 벽을 보면서 화두를 잡고 행하는 수도 역시 아니다. 대순사상에서의 수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며 닦는 수도이며, 자기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과 함께 신명과 척신과의 관계속에서 가는 길

19)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전게서, p. 16

20) 수도의 방법으로 '대월상제'라는 표현은 송나라의 성리학자인 주자가 사용한 바 있다. 주자는 『敬齋箴』에서 공부의 방법으로 '敬'을 강조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모자를 바르게 써야 하며, 대상을 보는 눈 모습을 존엄하게 하여야 한다. 마음을 잠심하여 마치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한다.(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라고 하였다.

21)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전게서, p. 18

이며 선각과 후각과의 사이에서 상제께서 대순하시고, 도주께서 봉천명하시었으며, 도전께서 우리를 영도하시는 큰 뜻을 받들면서 닦아야 하는 수도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상제와의 관계에서 상제를 모시는 마음인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정신을 살펴 보고, 둘째는 신명과의 관계에서 신명과 인간과의 역동적이며 유기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순사상에만 나타나는 수도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며, 셋째는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대순사상에서의 수도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서 유래되는 수도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사명에 대해서 음미해 보고자 한다.

1) 對越上帝의 精神

대순사상에서의 수도는 그 출발점이 상제를 모시는 마음이다.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게 하여 지극한 공경의 상태에서 상제를 모시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수도라면 무엇보다도 상제의 신격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상제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신격위에 대하여 암시하였다. 종도들이 추종할 때마다 제일 먼저 스스로 강세하신 배경은 물론 삼계공사의 개요와 함께 자신의 신명계에서의 위치, 즉 자신이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이심을 계시하였다. 상제께서 행하시는 천지공사에 종도들이 추종하기 시작한 시기는 크게 두 차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임인년(1902년)과 정미년(1907년)이다. 임인년에는 김형렬을 위시로 김자현, 김갑철, 김보경, 한공숙 등이 차례로 추종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미년에는 차경석을 비롯하여 박공우, 박장근, 안내성, 문공신, 신경수 등이 상제께서 행하시는 천지공사에 참여하였다.

상제께서는 임인년 4월, 처음으로 천지공사에 수종들기 시작한 김형렬에게 삼계공사에 대하여 설명하시고²²⁾ 스스로 강세하신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22) 『전경』, 공사 1장 3절, 예시 4~10절 참조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²³⁾

여기서 우리는 종교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으니, 바로 상제께서 자신의 신격위에 대하여 암시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 상제께서는 자신을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계시한 존재라고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상제께서 스스로가 상제이심을 천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최제우가 자신에게 종교적 계시를 내려주신 분이 바로 상제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최제우가 경신년(1880년) 4월에 있었던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밝힌 『동경대전』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뜻밖에도 사월에 마음이 선뜻해지며 몸이 떨려서 병이라 해도 증세를 잡을 수가 없고 말로도 형상할 수가 없을 즈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문득 귀에 들리거늘 깜짝 놀라서 캐어 물어본즉 “두려워하지 말고 저어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²⁴⁾

둘째, 상제께서 천상계에서 계신 곳이 ‘구천(九天)’이라는 점이다. 구천(九天)은 도교에서 말하는 모든 하늘중에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데²⁵⁾, 그곳에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계시어 만상을 주관한다고 한다.

삼백 육십 개의 하늘(크게는 삼십 육천이라 함)중의 제일 위에 구천이

23) 『전경』, 교운 1장 9절

24) 不意四月 心寒身戰 疾不得執症 言不得難狀之際 有何仙語 忽入耳中 驚起探問則曰 勿懼勿恐 世人謂我上帝 汝不知上帝耶. (『東經大典』 布德文)

25) 『正統道藏』 제 3권,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 藝文印書館, p. 2218 에 “구천은 삼십육천의 위에 존재하며, 시방삼계의 근원이 된다(九天在三十六天之上 十方三界之祖炁也)라는 기록이 있다.

있고 그 구천의 윗부분에 천존부가 있으며 그 천존부에 보화천존께서 계시신다. 보화천존께서는 모든 하늘을 다스리는 왕이며 조화의 주신이다. 모든 신령과 신명은 천존의 명을 받드니 위로 신전에서부터 아래로는 군생만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과 땅에 천존의 덕화를 입지 않는 이가 없다.²⁶⁾

『옥추경』에서는 이렇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께서 구천에 계시면서 뇌성으로써 여러 하늘과 땅들을 관장한다고 하면서 오랜 옛날에 이미 미래의 일체 중생과 귀신들을 구원할 것을 맹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께서, “나는 옛날 천오백겁 이전에 …… 미래에 일체 중생들과 용과 귀신들이 내 이름만 부르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며, 설혹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몸소 현신하여 구제하겠노라고 발원하였다.”라고 말하였다.²⁷⁾

이와 같이 우리는 상제께서 임인년 4월에 김형렬에게 하신 말씀에서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었으며 최수운에게 종교적 계시를 내린 상제(하느님)로서 바로 구천상제(九天上帝)이심을 알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미년(1907년)에 비로소 종도로서 추종한 차경석·박공우 등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으며²⁸⁾, 박공우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어 자신이 동학도들이 신앙하는 상제임을 암시하였다.

… 어느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때마다 하는 그 식고(食告)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쭙기를 「평생의 소원이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느님 뵈어지소서,」라는 발원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며

26) 曹誠佑編, 『玉樞寶經』(서울: 동양서적), 1982, p. 49 다음 구절은 『正統道藏』에 수록되어 있는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구절 앞에 ‘秋汀講曰’이란 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秋汀 崔秉斗라는 사람의 주석을 덧붙인 것 같다.

三百六十天之上 有九天 九天之上 有天尊府 天尊府中 有普化天尊 諸天之王 造化之祖 萬靈萬神 受命於天尊 行化於諸天諸地 上至群仙 下至蠢動 無非天尊之化民.

27) 『正統道藏』 제 3권,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集註」, 전개서, pp. 2222~3
天尊言 吾昔於千五百劫以先 …… 願於未來世 一切衆生 天龍鬼神 一稱吾名 悉使超渙 如所否者 吾當以身身之 …… 發三乘無邊之願 期在未來之世 但受九氣之物 有能歸吾化 稱吾名者 能起死回生

28) 『전경』, 권지 1장 11절 참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²⁹⁾

그러나 상제를 추종했던 종도들은 상제의 신격위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김형렬은 상제께서 “나는 곧 미륵이라”³⁰⁾라든가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³¹⁾ 등의 말씀을 하신 것에 집착하여 상제의 신격위를 금산사의 미륵으로 생각을 하였고 고수부, 차경석 등은 옥황상제로³²⁾ 신앙을 하였으며 『대순전경』에서는 상제에 대하여 ‘천사(天師)’로 표현하였고, 『천지개벽경』에서는 ‘대선생(大先生)’으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는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을 신앙의 대상으로서 구천상제(九天上帝) 즉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받들고 있다.³³⁾ 도주께서 을축년(1925년) 전북 구태인 도창현에 무극도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하시었으며,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스스로 강세하신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는 중에 ‘구천에 계신 상제’이심을 계시하였음에 대하여도 역시 전술한 바가 있다. 이렇게 상제의 신격위가 옥황상제가 아닌 구천상제이심은 상제께서 경자년(1900년)에 고향인 시루산에서 공부를 하실 때에 외운 진법주(眞法呪)에서도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전경』에는 상제께서 시루산에서 외우신 진법주의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여타의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구천하감지위(九天下鑑之位)

옥황상제하감지위(玉皇上帝下鑑之位)

29) 『전경』, 교운 1장 25절

30) 『전경』, 행록 2장 16절

31) 『전경』, 행록 5장 29절

32) 고수부가 상제의 신격위를 ‘옥황상제’로 이해한 것은 『증산교사』의 기록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상제께서 화천하신 것을 종도들은 고수부에게 알리지 않아 고수부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주문을 읽는 중 동곡 뒷산의 상제의 초빈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날 상제께서 직접 오시어 ‘내가 죽었으니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수부는 직접 동곡에 있는 상제의 초빈을 찾아 김형렬, 차경석, 차윤칠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초빈을 헤치고 ‘옥황상제(玉皇上帝)’라고 쓴 양지를 그 안에 덮었다고 한다. 이정립, 『증산교사』 (김제 : 증산교본부, 1977), p. 46 참조

33) 『대순지침』, p.17 참조

석가여래하감지위(釋迦如來下鑑之位)
 명부시왕응감지위(冥府十王應鑑之位)
 오악산왕응감지위(五岳山王應鑑之位)

<이하 생략>³⁴⁾

이 진법주에는 옥황상제하감지위의 윗자리에 구천하감지위라는 한 위(位)가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는 누구의 신격위인가에 대한 의문이 없지 않다. 이는 당연히 구천상제의 위(位)로 추정되며, 상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신격위를 봉안할 수 없기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하감지위'라고 하지 않고 단지 '구천하감지위'로써 진법주의 옥황상제하감지위의 윗자리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필자는 추측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대순사상에서는 상제의 신격위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봉안하고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일동일정에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수도의 요체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무엇보다도 상제의 신격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수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神明과 人間의 關係

수도에 있어서 인간과 신명과의 관계에서는 대순사상만이 지니는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순사상에서 수도란 수도하는 사람의 독립적인 문제가 아닌, 조상 선령신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고 척신과의 갈등속에서 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홀로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통신과의 연계속에서 신과 인간이 서로 합하여 지상신선을 이루는 신인조화의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봉어인(神封於人)이란 새로운 원리가 우주를 지배하는 인존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명과 인간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대순사상에서의 수도는 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 볼

34) 李孝鎭編, 『大聖經集』(서울 : 장학출판사, 1986), p. 481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과 수도하는 인간과의 관계는 다음의 네가지 방향에서 고찰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신명과 인간은 모두 상제께서 행하신 광구천하의 대상이다. 그것은 『전경』의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을 말함이니라.”³⁵⁾라든가 『대순진리회요람』의 “상도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의 운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재겁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주유하시며 대공사를 행하시니”³⁶⁾의 구절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신명은 인간과 함께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여 구제하고자 하신 대상인 것이다.

둘째, 신명은 인간이 정성을 드린다던가 수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감시하고 통제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이다. 상제께서 신명으로 하여금 인간의 수도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아마도 ‘진리에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것은 상제께서 정미년(1907년) 정월 어느날 김광찬과 신원일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³⁷⁾라고 말씀하신 데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신명은 진리에 지극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제께서 수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게 하셨으며³⁸⁾ 정성스럽지 못하여 불경의 마음을 품었거나 천지공사에 음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히 심판의 응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수도하는 사람의 기국에 따라 그를 호위도 하며 그가 능히 임무를 감당할 만한 기국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명인 것이다.

셋째, 신명은 인간의 생사를 비롯한 일상생활을 좌우할 뿐 아니라 크게는 인류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우선 신명들 중 특히 선령 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덕을 들여 자손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³⁹⁾ 풀잎 하나가 마르는 것도 신명의 영향이며 벽이 어느날 무너지는 것도 신명이 떠

35) 『전경』, 공사 1장 1절

36)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전게서, p. 8

37) 『전경』, 교운 1장 19절

38) 『전경』, 교법 3장 24절 참조

39) 『전경』, 교법 2장 36절 참조

났기 때문이다.⁴⁰⁾ 이렇게 신명은 작게는 초목에서부터 인간의 낳고 죽는 것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크게는 인간의 역사에도 개입하여 작용을 하는 존재이다.⁴¹⁾

넷째, 신명은 수도하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각 성(姓)의 수도하는 사람이 도통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 성의 선령신들이 각자 천상공정에 참여하여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수도하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호위하며 그의 기국을 가늠하기도 한다. 그 뿐 아니라 신명은 수도하는 사람의 가슴 속에 직접 작용을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바꾸게 하며⁴²⁾ 특히 유·불·선 도통신명은 수도하는 사람이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한다.

그런데 유·불·선 도통신명은 오직 대두목을 통하여 수도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음의 구절을 근거로 알 수가 있다.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⁴³⁾

이 때, 대두목을 통하여 수도하는 사람이 도통신명에 의해 도를 통하는 과정은 반드시 신인조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대순사상에서 설정하는 도통은 인간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마음을 닦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두목을 매개로 하여 도통신명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신과 인간(神人)이 서로 고르게 되어(調) 합하여 진 후에 변화를 일으킴으로써⁴⁴⁾ 전혀 새로운 존재, 즉 지상신선이 되는(化) 과정으로 생각되어야

40) 『전경』, 교법 3장 2절 참조

41) 『전경』에서는 관운장이 서양에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전쟁같은 역사적인 큰 사건에 신명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명부의 착란에 의해 온 세상이 착란하였다는 구절과 천상싸움이 끝나야 인간싸움이 결정난다는 표현은 크고 작은 인간사에 신명의 영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전경』, 행록 4장 11절, 공사 1장 5절, 교법 1장 54절 참조

42) 『전경』, 교법 3장 1절, 2절 참조

43) 『전경』, 교운 1장 41절

44) 이는 『전경』의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인간은 양이고 신은 음이다.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서로 합하여진 후에 변화하는 이치가 있다)」의

한다는 것이다.

수도의 의미 역시 신과 인간이 서로 고르게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도통신명과 짝이 될 정도로 고르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신을 다하여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상제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되고, 마음이 무욕청정의 상태에 이르러야⁴⁵⁾ 하기 때문이다.

3) 人間의 使命

대순사상에서는 인간 특히 수도하는 인간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한다. 우선 대순사상에서는 인간을 ‘천지가 어떤 중요한 용도에 쓰고자 태어나게 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일이 마땅히 왕성하게 되는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지는 사람을 내어 쓰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고자 할 때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 수 있겠는가)⁴⁶⁾

천지가 사람을 태어나게 하여 어떤 중요한 일에 쓰고자 한다는 것은 ‘천명(天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조상신들도 적극 가담을 하여 육십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인다고 상제께서는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인간은 하늘과 조상신들이 무언가를 바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라고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선령신들이 바라는 그 무엇인가는 결국 상제께서 행하시는 천지공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판단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전경』, 제생 43절

4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p. 38~39 참조

46) 『전경』, 교법 3장 47절

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지공사가 목적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추리해야 할 것인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순사상의 목적은 무자기·정신개벽·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할 수가 있는 바, 첫째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무자기·정신개벽·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신인조화의 관점에서 도통신명과 서로 고르게 되어 그 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 즉 성경신을 다하여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 세립미진이 되고 무욕청정이 되게 하는 수도의 실천이 필요하며, 둘째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상천국건설과 세계개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제께서 구제창생하고자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널리 알려 포덕천하를 이루고자 하는 실천이 요구되는 것이다.

2. 修道의 方法

대순사상에서 수도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에는 대순사상의 요체를 나타내고 있는 종지속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설정되어 있는 신조의 사강령 삼요체 중의 하나로서의 수도를 생각하는 것과 안심·안신·경천·수도의 사강령중의 하나로 수도를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순사상에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수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렇게 수도의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당연히 수도의 방법 역시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 차원의 의미에서, 신인조화에 나타난 신명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 신명과 어울릴 수 있는 상태 즉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 무욕청정이 된 '무자기(無自欺)'의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나 혼자만 수도의 완성인 도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차원의 의미에서 인류 모두가 같이 상제께서 행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를 알고 행하여 세계가 함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포덕천하(布德天下)'의 실천이다.

1) 無自欺

대순사상에서 사강령과 삼요체중의 하나로서 기술하고 있는 수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한다.⁴⁷⁾

수도는 심신을 침잠추밀하여 대월 상제의 영시의 정신을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한다.⁴⁸⁾

여기서 우리는 대순사상에서 행하는 수도종 몇가지 방법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대순사상에서 설정하는 수도에는 먼저 소정의 주문(태을주를 의미한다)을 봉행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상제께서 수도의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임인년에 처음으로 종도로서 추종하기 시작한 김형렬에게서였다. 임인년 4월에 김형렬이 비로소 상제를 추종하였을 때, 상제께서는 바로 김형렬에게 심법(心法)을 전수하시고 4월 보름부터 9월 19일 까지 수련을 시키셨다.⁴⁹⁾ 이 때 공부시키신 심법의 내용은 기록이 전하지는 않으나 태을주 수련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순사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문의 종류는 많으나⁵⁰⁾ 수도에 있어서 사용되는 것은 오로지 태을주이다.

태을주는 충남 비인사람인 김경흔이 오십년 공부로써 신명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과 함께 받은 주문으로, 상제께서는 태을주를 김경흔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⁵¹⁾ 상제께서는 신명해원의 차원에서 최제우가

47)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전계서, p. 16

48) 대순진리회교무부, 상계서, p. 18

49) 『전경』, 교운 1장 4절, 8절 참조

50)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문으로는 봉축주, 태을주, 기도주, 진법주, 칠성주, 운장주, 이십팔수주, 이십사절주, 도통주, 신장주, 해마주, 신성주 등이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주, 원이주, 관음주, 복마주, 음양경, 운합주, 옥추통, 태극주, 명이주, 오방주, 오장주, 구령삼정주, 예고주 등이 있다. 『전경』, 교운 2장 42절

51) 이강오는 태을주를 선조 때 사람인 김경소가 불교의 구축병마주(驅逐病魔呪)를 변형시킨 것으로 김경소는 이 태을주를 수련하여 개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김

얼은 시천주와 김경흔이 얼은 태을주 중에서 시천주는 이미 행세되었기에 태을주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에서 확정지으셨다.⁵²⁾ 태을주를 수도의 방법으로 정하신 상제께서는 항상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⁵³⁾라고 가르치실 정도로 태을주 사용을 수도의 방법으로 강조하신 것이다.

둘째, 상제를 영원히 모시겠다는 대월상제(對越上帝)의 영시(永侍)의 정신을 권권복응(拳拳服膺)하는 것이 수도라는 점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수도는 단순히 주문을 봉행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동정(動靜)과 수성(睡醒)을 막론하고 일동일정(一動一靜)에 항상 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다는 정신을 간직하여 사려(邪慮)없는 경건일념을 다하는 것을 수도의 진정한 의미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수도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립미진되고 마음이 무욕청정에 도달한 상태를 ‘무자기(無自欺)⁵⁴⁾’라 하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도통진경에 이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2) 布德天下

수도에 대하여 사강령 삼요체 중의 하나로서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발전적으로 확대하여 대순진리의 종지 속에서 목적을 이루

경소는 이것을 『태을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상제께서 발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강오, 『한국신홍종교총감』, 한국신홍종교연구소, 1992, p. 37 참조

52) 『전경』, 공사 3장 28절, 교운 1장 20절 참조

53) 『전경』, 교운 1장 60절

54) 無自欺라는 표현은 『대학』 「제 6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학』에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이른 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 즉 誠意는 格物과 致知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현해 나가는 단계이다. 그런데 격물과 치지는 주자가 말한 천하의 모든 이치를 모두 체인하는 비약적 단계인 豁然貫通(불교의 頓悟와 비견되는 개념임)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말한다면 무자기는 성지우성함으로써 마음을 청정무욕하게 하고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도통에 이를 수 있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서울: 박영사, 1990) 참조

5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전계서, p. 38, 39, 50 참조

—————, 『대순진리회요람』, 전계서, p. 9 참조

기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또한 수도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대순진리의 목적중 개별적 차원에서 무자기·정신개벽·인간개조·지상신선실현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위 뿐 아니라 전체적 차원에서 세계개벽·지상천국건설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위 역시 수도의 한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계개벽과 지상천국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상제께서 행하시는 천지공사의 측면과 신명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실천행위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상제께서 이룩하고자 하신 광구천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든 사람이 상제께서 대순하신 진리를 깨달아 후천의 무궁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포덕 및 교화라는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수도에 대하여 보다 발전된 광의의 의미에서 파악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제의 말씀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천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⁵⁶⁾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란 상제께서 천하를 광구하고자 하신 대순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어 그들로 하여금 후천선경의 무궁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대순사상에서는 해원상생의 대도의 참 뜻을 전하는 포덕이라는 종교적 행위 역시 공부 또는 수도로서 받아들여져야만 할 것이다.

포덕이란 상제께서 대순하신 광구천하의 진리로 구제창생키 위한 대인접촉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데, 상제께서 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지상낙원의 복을 받게 하는 일로 그 중요성을 음미할 수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포덕을 실천하는 중에 강세하신 강증산이 우주를 주재하신 권능의 주인으로서 상제의 무량하신 덕화와 무변하신 권지의 소유주이심을 널리 알려야 하며, 대순진리가 틀림없는 진리이며, 다가오는 후천운수

56) 『전경』, 교법 1장 2절

에 대한 확신과 천운구인(天運救人)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자인자각케 하는 교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IV. 神人調化와 修道의 完成

1. 醫統

의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이전에는 종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상제께서 인세에 계시기 때문에 상제를 추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 ‘도통’과 후천선경의 복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상제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화천하셨고 망연자실하게 된 종도들은 일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만 시일이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고 상제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상제께서 인세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첫째 상제께서 속히 열석자의 몸으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었으며, 둘째 상제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이 겪어야 할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었다. 여기서 병겁과 의통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대두되었다.

사실, 상제께서 병겁과 의통에 대하여는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⁵⁷⁾ 또한 상제께서 병겁과 의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가르침이 갖는 의미가 중요했다 할지라도 종도들은 상제께서 인세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상제를 추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의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상제께서 갑자기 화천하시자 상황은 달라졌다. 만약 상제께서 병겁이 닦이기 전에 출세를 하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57) 상제께서 의통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말씀으로 하신 것은 『전경』 공사 1장 36절의 기록 뿐이다. 그런데 글로 쓰신 것은 두 차례가 있는데 『전경』, 행록 5장 38절을 보면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거처하시던 방에서 발견된 흰 병의 종이 마개에 쓰여진 ‘병세문’에 의통이란 단어가 나오며, 『전경』, 예시 88절에는 어느날 공사를 행하시고 五呪와 함께 쓰신 글에서 의통이란 표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병겁 또는 괴질에 대한 말씀은 자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경우에는 어떻게 병겁에 대처해야 하는가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당연히 병겁의 해결책으로 상제께서 말씀하신 의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삼덕교의 서상학은 의통을 천지공사 전부로서 이해하였으며, 순천도에서는 현무경의 해석에 의거한 천지원리도를 의통으로 생각하였고, 보천교에서는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지폐만한 크기로 깎아 태을주 등을 각인한 녹표를 의통이라 하였다.⁵⁸⁾

한편 의통을 상제께서 말씀하신 해인(海印)⁵⁹⁾과 연결하여 인패(印牌)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었다. 『대순전경』의 저자 이상호는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바로 전날 밤에 박공우를 은밀히 불러 의통인패에 대하여 그 제작법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무진년(1928년) 동지에 기두하여 묻는 자에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그런데 문제는 무진년 동지에 기두하여 묻는 자가 결국 이상호 본인이라는 것이다. 무진년(1928년) 동지에 이상호는 용화동에서 동화교를 개교하였는데, 이 때 종도 수십인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박공우만이 참석하였다 한다. 그런데 박공우가 수일 후에 다시 와서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날 밤에 용화동에서 기두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부탁하셨다는 전말을 남기고 인패(印牌) 한벌을 전수하였다고 한다.⁶¹⁾ 즉 이상호는 상제께서 말씀하신 의통을 ‘인패’로 이해를 하였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의통을 이해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필자는 이에 의견을 달리한다. 우선 상제께서 박공우에게 화천하시기 전날 밤에 남몰래 의통을 전수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아무 증인도 없는 박공우 혼자만의 주장일 뿐이며, 더구나 무진년 동지에 이상호에게 전하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다는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

58) 안중운, 『의통에 관한 연구(일부)』, 대순사상논총 제 2집, 대순사상학술원, 1997, pp. 659~667 참조

59) 『전경』, 교운 1장 62절에 상제께서 김형렬에게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다.

60) 『대순전경』, 9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이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밤에 공우를 침실로 불러들여 일러 가라사대 네 입술에 곤륜산을 달라 무진 동지에 기두하여 묻는 자가 있으리니 의통인패 한벌을 전하라 좋고 나머지가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61) 홍범초, 『범중산교사』 (서울 : 한누리, 1988), p. 226 참조

이정립, 『대순철학』 (김제 : 증산교본부교화부, 1984), p. 221 참조

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상호가 상제의 종교적 정통성을 계승하였다는 절호의 증거인데 그것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왜 하필 박공우가 세상을 떠난 경진년(1940년)에서 몇년이 지난 을유년(1945년)에 공개를 하였단 말인가. 이상호가 1945년에 그 사실을 발표했을 때 그것을 증명해 줄 유일한 증인인 박공우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 인패의 사실성 여부와 그것을 이상호에게 전하라고 했다는 상제의 말씀 역시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호의 주장은 그 당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포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도주께서 이렇게 의통을 인패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에서도 알 수가 있다.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 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62)

대순사상에서는 의통을 도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병세문의 의통과 관련된 구절에서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도를 얻게 되면 큰 병도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되고 작은 병도 저절로 낫게 된다)”와 “大仁大義無病” 등을 보아도 의통을 도를 체득한 경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당시 의통을 인패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도주의 말씀에서 도주께서는 의통을 ‘해인’으로 표현하시었고 도주께서 하신 해인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을 ‘우주의 모든 이치의 근원 즉 도(道)라는 개념’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도전께서 의통을 도통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셨다는 사실에서 대순사상에서는 의통에 관한 여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의통은 바로 도통’이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62) 『전경』, 교운 2장 55절

2. 道通과 人尊時代의 到來

도통은 수도의 목적이다.⁶³⁾ 도통은 수도가 지향하는 목적지이며 수도의 결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통을 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수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대순진리회에서는 태을주를 봉송하고 상제를 모시는 마음을 권권복응하는 것이외에도 상제께서 하고자 하신 광구천하의 큰 일에 동참하여 일하는 것 역시 도통진경을 이루는 필수조건으로 여기기 때문에 수도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대순진리회에서는 도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오직 우리 대순진리회는 성·경·신 삼법언으로 수도의 요체로 삼고 안심·안신 이율령으로 수행의 훈전을 삼아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자기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하고 세기연질하여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대순진리를 면이수지하고 성지우성하여 도즉아 아즉도의 경지를 정각하고 일단 활연관통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해에 무소불능하나니 이것이 영통이며 도통인 것이다.⁶⁴⁾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여 마음이 청정무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도통을 하게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대순진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통은 반드시 대두목을 매개로 하여 도통신명과의 ‘신인조화’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신인조화’의 측면에서 도통을 바라 보았을 때, 나오는 관념이 인존의 개념이다.

인존이란 용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제께서 하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⁶⁵⁾는 말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인존이란 용어가 어느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특정한 시대를 지배하는 우주의 원리임을 알 수가 있

63)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 전개서, p. 37 참조

64)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 전개서, p. 9

65) 『전경』, 교법 2장 56절

다. “이제는 인존시대라”는 상제의 말씀에서 천존과 지존 역시 천존시대와 지존시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인간세계를 포함한 우주자연의 원리에 있어서 신명을 하늘에 봉했던 ‘신봉어천(神封於天)’의 시대와 신명을 땅에다 봉한 ‘신봉어지(神封於地)’의 시대를 상징할 수 있고 이제부터는 신명을 사람에게 봉하는 ‘신봉어인(神封於人)’의 시대가 도래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신명을 인간에게 봉하는 신봉어인의 시대는 인간에게는 신명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 상태가 요구되며 이는 무자기를 바탕으로 하는 마음공부 즉 수도가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렇게 수도가 완성되어 신명과 능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사람과 신명은 대두목을 매개로 하여 서로 통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대순진리에서 말하는 도통인 것이다. 이러한 원리 속에서 우리는 신명과 인간이 조화되어 서로 함께 완성을 이루는 지상신선의 실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단순히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천지만물이 음양합덕으로 완성을 이루는 천지가 성공하는 시대인 후천선경을 기다려 볼 수 있는 것이다.

V. 結論

어떤 종교이든 그 나름대로의 종지 및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종교 고유의 종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었을 때,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론을 정립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종교 고유의 종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했을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역시 올바로 정립되지 못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종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종단 대순진리회의 수도의 요람터라고 할 수 있는 도장(道場)에는 심우도(尋牛圖)라는 매우 상징적인 그림이 모셔져 있다. 도인이 도를 닦아 나가는 과정을 어느 어린 동자(童子)가 흰 소를 찾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여섯 폭의 그림에 담고 있는데, 심심유오(深深有悟)에서 봉득신교(奉得神敎)를 거쳐 먼

이수지(勉而修之)와 성지우성(誠之又誠)함으로써 도통진경(道通眞境)과 도지통명(道之通明)의 세계에 이르는 도인의 수도과정에 대한 심우도의 그림이 갖는 의미는 우리에게 올바른 대순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올바른 수도의 실천이 갖는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우선 이 심우도에 나오는 소는 불교의 심우도와는 달리 흰 소이다. 보통 소가 '도 또는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히 흰 소는 '대순진리의 도' 즉 '대순진리'를 뜻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동자가 소를 잡아 그위에 타려고 한다면 우선 그 소가 어떤 소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소의 종류에 따라 소를 잡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겠는가? 수도하는 도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먼저 대순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대순진리를 성취하여 도통진경과 도지통명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 다시 말하면 올바른 수도방법이 정립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의 종지는 대순진리의 요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신인조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으로써 '도통'이라는 각 수도인의 목적과 포덕천하·구제창생이라는 대순진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 올바른 수도의 실천이 가능하여 질 것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서울 :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 , 『대순지침』,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 『大巡眞理會要覽』,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한기독교서회편집부, 『현대성서사전』,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0
- 운허용하編, 『불교사전』, 서울: 법통사, 1962
- 李孝鎭編, 『大聖經集』, 서울 : 장학출판사, 1986
- 유교사전편찬위원회,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 안종운, “의통에 관한 연구 (일부)”, 대순사상논총 제 2집, 대순사상학술원,
1997
-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총감』, 한국신흥종교연구소, 1992
- 李正立, 『大巡哲學』, 김제 : 증산교본부교화부, 1984
- , 『甌山敎史』, 김제 : 증산교본부, 1977
- 洪凡草, 『汎甌山敎史』, 서울 : 도서출판 한누리, 1988
- 白世明編, 『東學經典解義』, 서울 : 일신사, 1963
- 曹誠佑編, 『玉樞寶經』, 서울 : 동양서적, 1982
- 『正統道藏』, 藝文印書館